

“전북형 마을 돌봄교육 협력모델 구축”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교육 통합지원 협약 체결

전북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합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전북형 돌봄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담당하며 지역사회 내 핵심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육기관과의 소통

부족과 운영 지원 한계 등으로 돌봄 공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 돌봄 기능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활성화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와 천호성 예비후보는 △교육복지 협력기관 공식 인정 △이용 아동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청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중·고생 진로·취업 지원 △교육청-지역아동센터 정책협의체 정례 운영 △아동 행복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예산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제한된 정책을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북 아동들의 성장권과 학습권, 교육복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합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군산대, '제4회 해양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10개 팀 72명 참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지난 8일 교내 종합교육관 앞마당에서 조선공학과의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가 공동 주관한 '제4회 해양모빌리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 팀, 72명의 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선박 설계부터 제작,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해양공학 분야의 실무 역량과 협업 능력을 기웠다.

본선은 자체 제작한 모형 선박을 활용해 스피드 경기와 원격제어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스피드 경기는 경하 조건과 만재 조건에서 선박의 주행 성능을 겨뤘으며, 원격제어 경기는 직진 성능과 장애물 회피 능력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제작한 홍보 영상 영상의 완성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해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10개 팀 모두에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포함됐으며, 일부 팀에서는 설계, 제작, 영상 촬영, 발표 등 주요 역할을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주도하기도 했다. 전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8일 교내 종합교육관 앞마당에서 조선공학과와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가 공동 주관한 '제4회 해양모빌리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 선박을 앞둔 학생들이 해양공학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지역 해양 산업계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도 이번 대회의 특징이다. 전북신화융합원(쥬페스코, 협동조선소, 금강중공업, IK텍, 하이퍼미린 등 지역 주요 조선·해양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 기술 완성도, 창의성 및 독창성, 팀워크와 발표력을 평가했다. 이날 대상은 조선공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웹스팀'이 차지했다. 팀

장 조광중 학생은 “팀원들과 밤새워 선박을 다듬고 또 다듬었던 시간이 떠올라 감격스럽다”며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팀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조선공학과,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자율전공학부 학생 간 교류와 지역 조선·해양 산업계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대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인턴 전원 정규직 채용

국립대 최초 학연교수제... 글로컬30 지·산·학·연 협력 성과

전북형 워털루코업 프로그램... 배터리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지향하는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창출했다. 전북대는 한국과 학기연교수제(KIST)와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연교수제'를 기반으로 설립·운영 중인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가 산학 연계형 교육을 통해 기업 인턴십 참여 대학원생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학연 협력 모델로, 대학·출연연·기업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는 비나텍(주), 에너이비배터리솔루션(주),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산학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번 성과는 '전북형 워털루 코업(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학기 중 이론 교육과 방학 중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특히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 인턴십 과정에서 학생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 실무를 수행하며 높은 직무 적응력을 보였다. 그 결과 참여 인턴 지원이 기업 평가를 통과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졌다. 이승희 학과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현장실습을 넘어 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학연 협력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연교수제를 기반으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 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연교수제를 기반으로 대학과 출연연,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학연 협력 모델이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지향하는 지·산·학·연 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시행한 검정고시 결과 초졸 60명, 중졸 144명, 고졸 561명 등 총 765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78명, 중졸 182명, 고졸 789명 등 모두 1,047명이 지원했다.

합격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초졸 70세, 중졸 79세, 고졸 79세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2세로 나타났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의 경우 2~3일 내 받아볼 수 있으며, 방문 수령 신청자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함께하는 합격증서 수여식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최고령 합격자와 장애를 극복하고 합격한 수험생들을 직접 찾아가 합격증서를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사례집 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노무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직 원 노무관리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근로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계산과 복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관계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에는 임금 관리와 복무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총 81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 특히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급여·수당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복무 처리 기준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이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무직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노무관리 체계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 노사협력과 자료실에도 게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남부시장 백년시장 상인 공유 한마당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 전주남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단, 전주남부시장상인회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남부시장 상인들의 삶 이제 생성형 AI가 기록한다

전주대 RISE 사업단 '이모션크래프트 AI' 개발 전주남부시장상인회 등과 3차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 사업단 전주남부시장 특성화시장(백년시장) 육성사업단, 전주남부시장상인회는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AI 기반 전통 시장 스토리 콘텐츠 발굴과 시장 데이터 디지털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의 중심에는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이 약 2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구축한 'EmotionCraft AI' 감성 스토리텔링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자동 글쓰기 도구를 넘어, 인터뷰와 대화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기억·경험·감정, 나아가 지역의 장소성과 문화적 맥락을 분석해 치유형 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반 시스템이다. 상인의 삶의 여정, 수십 년을 지켜온 가게의 시간 단골과의 관계, 시장이 품어온 지역 생활문화를 감성적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 △시장 데이터 기반 디지털화 건설 및 청년 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스토리 콘텐츠는 시장 홍보와 관광 자원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과 치유형 글쓰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플랫폼 개발에는 전주대학교 한동승·박경수 교수와 원민 초빙교수, 세희에스앤디 이성민 대표, 싱크앤유 한은주 대표, 전주대 연구원들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감성 스토리텔링 구조와 생성형 AI 기반 글쓰기 프로세스, 지역 문화자원과 치유 콘텐츠의 연결 방법론을 분석해 치유형 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반 시스템이다. 상인의 삶의 여정, 수십 년을 지켜온 가게의 시간 단골과의 관계, 시장이 품어온 지역 생활문화를 감성적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약에는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 한동승 교수, 전주남부시장 특성화시장(백년시장) 육성사업단 김병수 사업단장, 전주남부시장상인회 오기성 상인회장이 각 기관 대표로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 △시장 데이터 기반 디지털화 건설 및 청년 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스토리 콘텐츠는 시장 홍보와 관광 자원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과 치유형 글쓰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플랫폼 개발에는 전주대학교 한동승·박경수 교수와 원민 초빙교수, 세희에스앤디 이성민 대표, 싱크앤유 한은주 대표, 전주대 연구원들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감성 스토리텔링 구조와 생성형 AI 기반 글쓰기 프로세스, 지역 문화자원과 치유 콘텐츠의 연결 방법론을 분석해 치유형 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반 시스템이다. 상인의 삶의 여정, 수십 년을 지켜온 가게의 시간 단골과의 관계, 시장이 품어온 지역 생활문화를 감성적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약에는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 한동승 교수, 전주남부시장 특성화시장(백년시장) 육성사업단 김병수 사업단장, 전주남부시장상인회 오기성 상인회장이 각 기관 대표로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전북교육청, 회계 절차 간소화·전자문서 보관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 개정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회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산 전용 제한 항목에서 시설비를 제외해 학교가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집행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제세공과금 등을 한 번에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급' 지급 항목을 신설했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운영비도 개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자치활동 예산 집행 편의성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저탄소 환경급식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저탄소 환경급식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전남 곡성 일원에서 '저탄소 환경급식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온 '몸·맘·치유의 채식 알아보기' 직무원·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채식 급식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연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 이해를 비롯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채식 식단 운영 전략, 학교 현장의 저탄소 급식 사례 공유, 채식 활성화를 위한 레시피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친환경 생태농업 전문가인 이동철 미실란 대표가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변화와 학교급식의 역할, 저탄소 식단 설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상근 기자